

## 정신분열병 환자의 부모폭력에 관한 연구

서미경(가톨릭대 강사)

### I. 서론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자들의 행동은 예측하기 어렵고 난폭하여 시민들의 안녕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부정적 시각과 더불어 기도원과 요양시설에서의 비인도적 처우에 대한 매스컴의 보도는 정신질환자에게도 당연히 시민으로써 누려야 할 인권이 있음을 주장하게 되었다. 결국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신질환자를 격리시켜야 한다는 것과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다소 모순된 듯한 논란이 한동안 있어 왔다.

이런 논란 끝에 정신질환자에게 자유로운 환경과 권리를 보장한다는 기본이념을 지닌 정신보건법이 1995년 12월에 통과되었다. 이 법의 통과로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들을 지역사회에 적응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관심에 앞서 지역사회가 가장 두려워하는 정신질환자의 폭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정신질환자의 폭력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정신질환자들 중 특히 정신분열병 환자들이 성격적 이유 때문에 주로 부모에게 폭력을 보인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것은 부모의 권위에 대한 극단적인 도전으로 부모-자녀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대표적인 만성정신질환인 정신분열병은 질병의 특성상 사회적, 경제적으로 상당부분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보이는 부모폭력<sup>1)</sup>은 부모들을 더욱 지치게 하여 환자에 대한 보호를 질병의 특성상 사회적, 경제적으로 상당부분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보

\*본 연구내용은 이화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임.

1) 본 연구에서 부모폭력은 자녀가 부모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거나 혹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이다. 여기에는 부모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 밀치거나 살짝때리는 것에서 발로차고 깨물고 주먹질하거나 심지어 칼이나 흉기를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 정리하고자 한다.

이는 부모폭력<sup>2)</sup>은 부모들을 더욱 지치게 하여 환자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정신분열병 환자의 부모폭력에 초점을 두어 부모폭력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부모폭력을 설명하는 이론

부모폭력에 관한 선행연구가 드물고 아직 이론적 정립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부모폭력을 가정폭력의 한 형태로 보고 일반적인 가정폭력의 이론에 근거하여 부모폭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설명하고자 한다.

#### (1) 개인내적 이론

일반적인 가정폭력에 대한 개인내적 이론(intraindividual theory)에서는 가정폭력의 근본적 원인으로 가해자의 반사회성, 정신병리, 알콜의 영향을 들고 있다<sup>3)</sup>. 본 연구에서는 정신병리를 증상면에서 따로 언급하므로 여기서는 환자의 반사회성과 알콜의 영향을 보고자 한다.

개인내적 이론에서 가정폭력의 전제는 가해자의 공격성이 그의 반사회적 혹은 사회 병질적(sociopathy) 경향에서 나온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반사회적 경향으로 가정폭력을 보이는 사람은 가정외에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도 싸움이 잦고 그외의 기타 다른 형태의 폭력에 참여하는 경향이 많다<sup>4)</sup>고 한다. 또한 이런 사람은 사회가 허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죄의식이 적은 편이므로 가정폭력을 보이고도 죄의식없이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sup>5)</sup>

또한 개인내적 이론에서는 반사회성이외에 알콜이 가정내의 폭력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본

---

2) 본 연구에서 부모폭력은 자녀가 부모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거나 혹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이다. 여기에는 부모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 밀치거나 살짜대리는 것에서 발로차고 깨물고 주먹질하거나 심지어 칼이나 흉기를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 정리하고자 한다.

3) R. J. Gelles, Murray A Straus (1979). Determinants of violence in the family : toward a theoretical integration, In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1), eds. by Wesley R. Burr, Reuben Hill, F. Ivan Nye and Ira L. Reiss (New York : Free Press), p.564.

4) P.C.Kratcoski(1984). Perspectives on intrafamily violence. Human Relations. 37. 443-454.

5) Pfeffer, C. R., Plutchik, R., Mizruchi, M. (1983). Predictors of assaultiveness in latency age children. Am J Psychiatry. 140. 31-35.

다. 실제 알콜이 어떻게 폭력을 증가시키는데 대해서는 두가지 설명이 있다. 첫번째 설명은 알콜이 생리적 기제를 통해 불안과 두려움을 감소시켜 공격적 표현을 조장하는 금지해제(disinhibition)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설명은 가해자가 자신의 폭력을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이라고 변명하려는 심리적 기대 때문에 알콜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 (2) 좌절 - 공격 이론

좌절- 공격 이론(frustration - aggression theory)은 공격성의 선행조건으로 좌절을 전제한다. 이 이론에서 좌절감은 어떤 목적 의식적인 행위가 방해될 때 가장 커지는데 특히 목적이 달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을수록 좌절감이 더 커지고 그 결과 공격성이 일어난다는 것이다.<sup>6)</sup> 이를 가정폭력에 적용하면, 가족은 서로에게 늘 더 많은 애정을 기대하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 더 쉽게 좌절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가정폭력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자주 보고되는 사례들에서는 부모폭력을 보이는 사람들의 성격이 타인에게 지나치게 예민하여 불안이 많고 집밖에서는 내향적이고 수동적이라고 한다.<sup>7)</sup> 이런 사람들은 성격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많아 학교와 외부에서의 좌절에는 공격성을 표현하지 못하고 만만하다고 생각되는 부모에게 대치시켜 사소한 일에도 공격성을 표현한다는 것이다.<sup>8)</sup> 즉, 집밖에서는 수동적이고 겁많은 사람이 집안에서는 폭군이 된다는 것이다.

#### (3) 사회학습 이론

사회학습론(social learning theory)에서는 아동들의 공격성은 공격적인 모델을 관찰하고 그 모델이 언제 강화받는지 주시함으로써 학습된다고 본다.<sup>9)</sup> 이런 관점에서 가정폭력을 보면, 부모가 보이는 가정폭력은 그 자녀에게 공격적 행동의 모형(model)을 제공할 뿐 아니라 집안에 그런 행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정당성을 제공해준다. 마찬가지로 부모폭력에 있어서도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력으로 통제하는 것을 보고 자란 사람은 사소한 갈등에도 아버지와 유사한 방식으로 어머니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 (4) 교환이론

교환이론(exchange theory)에서는 인간의 상호작용이 보상을 추구하고 벌과 댓가를 피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를 가정폭력에 적용하면, 폭력행동이 있을 때 희생자쪽에서 무조건 잘못했다

6) 최외선, 김갑숙 (1990). 청소년의 공격성에 관한 연구 (I) - 중학생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인문연구」 11, 301-321.

7) 이시형, 신영철, 여인중, 오강섭 (1995). 어머니를 구타한 정신과 환자. 「신경정신의학」, 32, 501-508.

8) Yoshihiro Narita (1995). Family violence in Japan : Particularly childrens' violence against their parents. Paper presented at 5th Scientific Meeting of Asian Academy of Cultural Psychiatry, Tokyo,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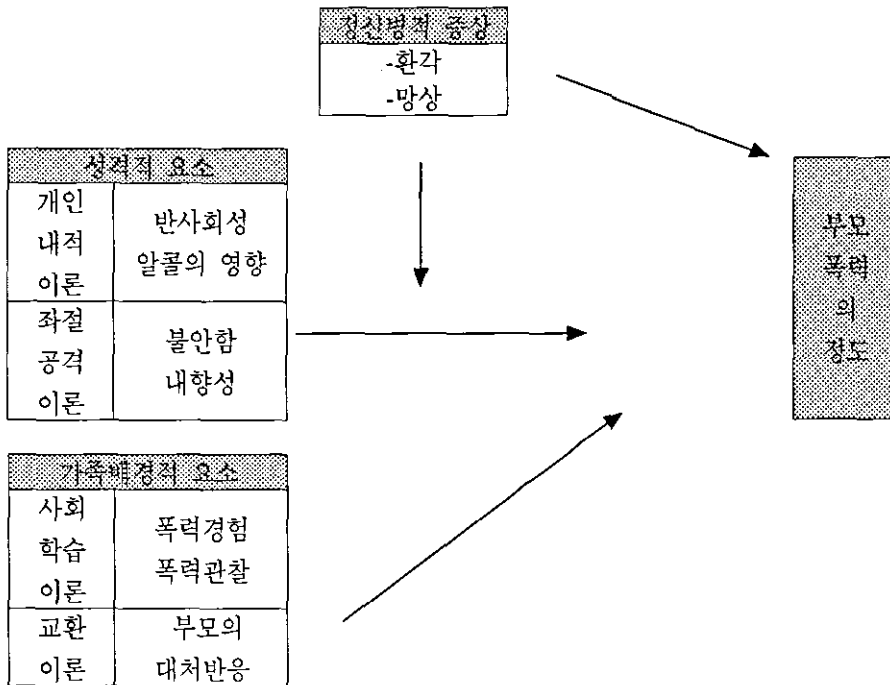
9) Bandura, A., Walters, R. H. (1965). Social Learning and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고 빈다든가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등의 보상적 반응은 폭력의 가능성을 높이고 희생자가 되받아 치거나과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여 가해자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반응 등은 폭력행동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sup>10)</sup> 부모폭력에서도 보통 폭력을 당한 부모는 자녀를 잘못 길렀다는 후회, 자신이 잘못 대해줘서 폭력이 일어났다는 죄책감 등으로 오히려 더 잘 대해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sup>11)</sup> 이러한 반응은 부모폭력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하여 폭력의 상습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행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정당성을 제공해준다. 마찬가지로 부모폭력에 있어서도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력으로 통제하는 것을 보고 자란 사람은 사소한 갈등에도 아버지와 유사한 방식으로 어머니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 2.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과 같다.



10) Gelles, Richard. J. (1983). An exchange / social control theory. In *The dark side of families*, eds. by David Finkelhor, Richard J. Gelles, Gerald T. Hotaling, London : SAGE Publications. pp.157-158.

11) 이시형 등, 상제서, 1995.

즉, 성격적 요소가 부모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고 그 영향력을 명확히하기 위해 정신병적 증상의 영향력을 통제하여 본다. 그리고 성격적 요소이외의 가족배경적 요소와 부모폭력과의 상관관계를 본다.

### Ⅲ. 연구방법

#### 1. 조사방법

조사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정신분열병 환자 187명을 일대일로 면담하여 이루어 졌다. 조사 도구는 성격적 요소를 측정하기 위해 정신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다면적인성검사(MMPI)를 사용하였고 부모폭력 정도, 폭력관찰, 폭력경험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Straus의 갈등처리척도(Conflict Tactics Scale)중 폭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외의 변수들은 면담내용을 분석하고 환자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정신병적 증상과 관련된 자료들은 의무기록지를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 2. 조사대상

<표 1> 대상자의 인구학적 배경

단위 : 명 (%)

변수	내 용	빈도 (%)
성별	남	138 (73.8)
	여	49 (26.2)
연령	29세 이하	71 (38.0)
	30 - 39세	80 (42.8)
	40세 이상	36 (19.2)
교육정도	국민학교 이하	22 (11.8)
	중학교 정도	39 (20.9)
	고등학교 정도	96 (51.3)
	대학교 정도	30 (16.0)
결혼상태	기혼	28 (15.0)
	미혼	135 (72.2)
	이혼및 별거, 사별	24 (12.8)

형제관계	장남(녀)	64 (34.2)
	막내	36 (19.3)
	중간	87 (46.5)
유병기간	1년 이내	25 (13.3)
	1년 - 3년 미만	37 (19.8)
	3년 - 5년 미만	23 (12.3)
	5년 이상	102 (54.5)

#### IV. 연구결과

##### 1. 환자의 성격적 요소들의 부모폭력에 대한 영향력

환자의 성격적 요소들이 부모폭력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알아본 결과 <표 2>와 같이 반사회성만이 부모폭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주는 요인이었다.

<표 2> 성격적 요소들의 부모폭력에 대한 영향력

성격적 요소	B	Beta	sig T	분할값
상수	2.318			
반사회성	.031	.197	.023	.0387
강박적 불안	.043	.098	.527	.0029
내향성	-.035	-.133	.460	.0041
음주 (d)* (비음주)**	-.132	-.012	.895	.0001
				R <sup>2</sup> : .0458

\* (d)는 가변인(dummy variable)을 의미한다.

\*\* 가변인으로 측정했을 때 준거(reference)집단을 의미

또한 환자의 모든 성격적 요소들의 부모폭력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4.58%이고 그중 반사회성의 설명력이 3.87%로 가장 크다. 나머지 요소의 설명력은 전부 합쳐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세한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 2. 정신병적 증상과 부모폭력 정도

정신질환자의 일반적인 폭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정신병적 증상면에서는 폭력당시 환각과 망상이 있는 환자가 없는 환자 보다 부모폭력 정도가 더 높았다.

<표 3> 폭력당시 정신병적 증상의 유무에 따른 부모폭력 정도의 차이

증상의 유무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p
환각	환각이 있음 (85)	4.224	3.617	3.35	.001
	환각이 없음 (102)	2.235	4.492		
망상	망상이 있음 (71)	4.141	3.318	2.78	.006
	망상이 없음 (76)	2.526	4.601		

## 3. 정신병적 증상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성격적 요소의 영향력

정신병적 증상을 통제한 상태에서 성격적 요소의 영향력은 다음 <표4>와 같다.

<표 4> 성격적 요소와 정신병적 증상의 부모폭력에 대한 영향력

변인	B	Beta	sig T	분할값
상수	1.211			
반사회성	.043	.197	.023	.0387
환각 (d)* (환각이 없음)**	1.064	.116	.191	.0126
망상 (d) (망상이 없음)	.464	.053	.579	.0022
강박적 불안	.016	.073	.642	.0016
내향성	-.032	-.125	.489	.0052
음주 (d) (비음주)	-.206	-.018	.838	.0003
R <sup>2</sup> : .0590				

즉, 환각, 망상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반사회성만이 부모폭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고 나머지 요소의 영향력은 환각과 망상으로 인해 영향력이 약간 달라졌으나 통계적인 의미는 없었다.

#### 4. 가족 배경적 요소와 부모폭력 정도

##### (1) 폭력의 세대간 전달 요소와 부모폭력

어린시절의 폭력경험과 폭력관찰 등의 폭력의 세대간 전달 요소와 부모폭력 정도는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어린시절 폭력경험과 폭력관찰이 많을 수록 부모폭력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폭력의 세대간 전달 요소와 부모폭력 정도와의 상관관계

변수	부모폭력 정도	p
폭력경험	.4086	.000
폭력관찰	.4646	.000

##### (2) 부모의 대처반응 요소와 부모폭력 정도

폭력 후 부모가 보인 대처반응에 따른 부모폭력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6> 대처반응에 따른 부모폭력 정도의 차이

부모의 대처반응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p
소극적 반응 (42)	4.38	4.52	.216	.806
적극적 반응 (60)	4.93	4.69		
폭력적 반응 (21)	4.43	4.07		
계 (123)	4.66	4.50		

#### 5. 모든 요소들의 부모폭력에 대한 영향력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 중 어느 요소가 부모폭력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지 알아본 결과 어린시절의 폭력관찰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들의 부모폭력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력은 19.92%이고 그 중 폭력관찰과 폭력경험 그리고 환자의 반사회성이 합쳐서 19.27%를 설명한다. 나머지 변인들의 설명력은 합쳐서 1%에도 미치지 못했다.



&lt;표 7&gt;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변인들이 부모폭력에 미치는 영향력 및 설명력

변인	B	Beta	sig T	설명력
상수	1.176			
폭력관찰	.196	.389	.000	.1513
폭력경험	.089	.168	.098	.0207
반사회성	.029	.145	.094	.0207
폭력적인 부모의 대처반응 (d)*	-.635	-.063	.477	.0038
소극적인 부모의 대처반응 (d) (적극적인 부모의 대처반응)**	-.301	-.038	.678	.0012
망상 (d) (망상이 없음)	.260	.034	.700	.0011
내향성	.005	.022	.871	.0002
강박적 불안	-.004	-.020	.918	.0001
음주 (d) (비음주)	.060	.006	.946	.0001
환각 (d) (환각이 없음)	-.050	-.006	.953	.000
$R^2 : .1992$				

결국 정신분열병 환자의 부모폭력은 어린시절 폭력관찰, 폭력경험 그리고 환자의 반사회성으로 가장 잘 설명된다고 볼 수 있다

## V. 결론

정신분열병 환자의 부모폭력에 관한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임상적 의미는 무엇보다도 정신분열병 환자의 부모폭력이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신분열병은 사고 및 지각의 장애가 두드러지는 질병이므로 일반적으로 그들의 폭력이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비현실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한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어린시절 폭력관찰과 폭력경험 그리고 환자의 성격적 요소 중 반사회성이 정신분열병 환자의 부모폭력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오히려 환각과 망상의 영향력은 미세하다.

따라서 정신보건 분야의 사회사업가는 정신분열병 환자의 부모폭력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폭력의 세대간 전달 과정과 환자의 반사회성에 대한 임상적 개입을 하여야 할 것이다.